

“2년만의 재개…혈육 상봉 기대 커요”

“고작 100명…내 생전에 기회 오려나”

광주 실향민들 ‘이산 상봉’ 기대 반 우려 반

“복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의 얼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복에 있는 가족을 만날 기회가 다시 열렸다고 하니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함경남도 흥남이 고향인 박성창(77·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할아버지는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뤄져서 다행”이라면서도 “고작 100명씩 만난다면 언제나 우리 치례가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 할아버지는 “더 많은 이산가족

이 만날 수 있게 하거나, 좀 더 자주 상봉의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며 “만날 수 없다면, 서신을 통해 생사나 안부라도 알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1·4 후퇴 때 부모와 형제 6명을 복에 두고 왔다는 광주시 이복5도연합회 평안남도 회장 명상엽(79·광주시 서구 양동) 할아버지는 “우리 실향민들은 눈만 뜨면 가족생각, 고향생각”이라며 “살아 생전 내게도 기회가 오려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수억(82) 할아버지는 “수년 전 상봉 신청을 해놨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묻지도 말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남쪽 신청자 중 90세 이상이 4천여명, 80~89세가 2만8천여명에 달하며 총 신청자는 8만8천여명이다. 한 차례 100명씩

이면 산술적으로 880회 이상 상봉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최종 선정은 주첨으로 한다.

박규옥(77) 할머니는 “3년 전 중국에서 복에 있는 언니와 조카를 만난 적이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언제

든지 또 보고 싶다”며 다시 열린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0월부터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년만에 다음달 26~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이뤄진다. 다음달 26~28일에는 남측 방문단(100명)이 복에 있는 가족과 만나고, 9월 29~10월 1일은 북측 방문단(100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할 예정이다.

앞서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로 선정된 300명에게는 8월 29~31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이후 생사 확인의뢰서 교환(9월 1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100명) 교환 등이 이뤄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30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전동차 살균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지하철 역무실에 체온계, 화장실에 물비누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등 신종플루 종합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하철·동물원 등 신종플루 ‘초비상’

손 세정제·마스크 등 비치 ‘손 씻기’ 홍보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 발생하고, 확진 환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공원과 극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초비상상태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우치공원에 따르면 공원 정문에 손 소독 세정제(2개)를 비치했으며, 공원 내 화장실 12곳에도 기존 비누와 달리 ‘항균비누’를 준비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에 나섰다. 공원 측은 또 공원 내 세면대 10여 곳에도 항균비누를 비치했다. 공원 측은 또 월 1회씩 해오던 바이러스 살균 소독도 일 1회로 대폭 강화했으며, 관람객이

웃과 야구장 내 화장실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관객들이 항상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전동차와 역사 등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살균 및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역무실에 체온계를 비치해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장실에 물비누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음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각 역 화장실에 부착하는 등 ‘손 씻기 홍보’에 나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벙커C유, 폐유라 속에 세금 포함

○…여수세관은 30일 수입 연료용 기름을 폐유로 속여 세금을 포함한 기름값과 청소업체 대표 A(53)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여수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여수항에서 파나마 외항선을 통해 벙커C유 908t가량을 들여오면서 이를 폐유라고 신고해 5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포함한 혐의.

○…조사결과 A씨는 벙커C유를 수입하면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석유판매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폐유를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만 내면 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명.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알림 : 나원참 화백 휴가로 9월 5일까지 만화·만평 쉽니다.

정율성국제음악제 중국 공연 연기

광주·전남 신종플루 확산… 휴업 7개 학교로 늘어

광주·전남지역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 정율성국제음악제’ 중국 공연이 내년봄으로 연기됐다.

시는 30일 가을철 신종플루 확산 가능성 커짐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북경과 연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율성음악제를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과 10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정율성음악제 관련 행사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

후 5시 현재 이 지역의 확진 환자 수는 115명으로 지난 28일 106명보다 9명 늘었다. 광주지역 확진 환자는 23명에서 25명으로, 전남은 83명에서 9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영암의 모 중학교는 학생 3명 확진 판명을 받음에 따라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업하기로 했으며, 원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한꺼번에 신종플루에 감염되기도 했다.

이로써 신종플루 때문에 휴업 조치를 단행한 학교는 현재까지 광주 3개교와 전남 4개교 등 총 7개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림2지구 24억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북구청, 주공에 승소

광주시 북구는 최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북구 동림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개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해 24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는 지난 20일 주공이 북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취소 행정심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 주공의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번 승소는 주공이 1989년 이후 목포 연산지구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처음이다. 특히 전국에서 시행 중인 주공의 각

종 개발사업(50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지난 3월 “공공기관의 개발 비용은 법정 초과액이라도 전액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며, 북구청은 “개발비용이라도 토지가치 증진을 위한 순수 개발비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